

“이달에 차 사면 팍~팍~ 깎아 드려요”



자동차업체들, 휴가철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

기아차 모닝-자동차세·차량유지비

현대차 엑센트-3.9% 저금리 할부

한국GM- 최대 100만원 지원

르노삼성-SM5·SM7 옵션 할인

8월 휴가철을 맞아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내걸고 판촉전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번 달 모닝을 구매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차량 유지비·금융 비용 지원 등의 혜택으로 구성된 ‘모닝 트리플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자동차세 5년분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원하며, 20만원 상당의 유류비도 제공한다. 고객이 희망하면 유류비 대신 40만원 상당의 삼성 인버터 제습기를 준다. 여기에 차량 출고일로부터 한 달간 현대 M계열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혹은 하이패스 이용 금액 중 10만원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기아차는 모닝 구매 때 차량 전체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받을 내는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달 엑센트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깎아주거나, 3.9%의 저금리로 할부해준다. 전

달의 판매 조건인 4.9% 할부보다 금리가 낮아졌다. Y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250만원 할인이나 100만원 할인 및 1.4% 저금리 할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수입차 보유 고객이 에쿠스를 구입하면 50만원을, 벨로스터나 i30, i40를 사면 30만원을 깎아줄 예정이다.

한국GM은 말리부 디젤과 카마로, 스파크EV를 제외하고 전 차종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스파크의 경우 이달 14일까지 출고 고객은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SM5와 SM7 차종에 리어 글라스와 뒷좌석 원도 선블라인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묶어 최대 8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아울러 SM5 스마트 할부 고객은 36개월 2.9% 저금리를 비롯해 48개월 3.9%, 60개월 4.9%의 저리 구매 혜택을 준다.

쌍용차는 8월 출고 고객에게 가족여행비와 유류비 지원, 선루프 무상 장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뉴 코란도 C와 렉스턴 W,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에 따라 3.9~6.9%의 장기 저리 할부(24~72개월)를 운영한다. 이 할부로 뉴 코란도 C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내비게이션(36개월 이상)을 준다. 아울러 렉스턴 W 출고 이후 2000km 및 1개월 이내 주행 중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새 차로 바꿔주는 ‘렉스턴 품질 자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차 효과 불씨 살려라”

현대차 LF쏘나타 택시 출시 검토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에 LF쏘나타 택시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LF쏘나타 택시의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업현장에서는 LF쏘나타 택시가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택시법인 등을 상대로 이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올해 3월 말 선보인 LF쏘나타는 국내 시장에서 4월에만 1만1904대, 5월 1만324대 등 두 달 연속 1만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6월에는 판매량이 급감하며 6925대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차효과가 벌써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출시 초기에 신차를 기다렸던 대기 물량이 해소되면서 판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내수시장에서 LF쏘나타의 판매 목표량을 6만3000대로 잡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LF쏘나타 판매량 총 2만9153대

가운데 41%가량인 1만1997대는 LPG 차량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의 LPG 차량은 주로 영업용 차량으로 판매돼 상당수 물량은 렌터카나 리스회사에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신차 출시 초기에 몰렸던 렌터카나 리스회사 수요도 하반기에 찾아들면 LF쏘나타의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택시 수요를 통해 다시 한번 ‘신차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복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LF쏘나타 택시 모델이 출시되면 다시 한번 판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수십 명을 태우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는 택시기사들의 ‘입소문’ 효과가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4만~5만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업계에서는 ‘택시 1대를 파는 것이 승용차 10대를 파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통한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에 YF쏘나타와 K5 택시 등 총 1만8750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이 516대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현대·기아차는 이미 택시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가격 인터넷 공개

이달부터... 자동차제조사 홈페이지 통해

수입차 포함해 국내 판매 모든 차량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제조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자동차제조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조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오래타기

9 편의사양 용어

자동차의 편의사양이 첨박화 되면서 알파벳 약자로 된 용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봤다.

운전자세기억-시트가 자세 기억 편의성↑

회전반경제어-U턴때 반경줄여 기동성↑

◇IMS(Integrated Memory System)
운전자세기억장치를 말한다. 자동차의 시트가 운전자의 자세를 기억해 운전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종합기억장치다.

◇VRS(Variable Rack Stroke)
회전반경제어장치를 뜻한다. 차량이 U턴을 하거나 회전할 경우 최소회전반경을 줄여 차량의 기동성을 향상시킨다.

◇AQS(Air Quality-control System)
유해가스 자동 차단장치다. 외부 공기의 오염도에 따라 깨끗한 실내 청정도 유지를 위해 자동으로 유입 또는 차단모드로 전환하는 장치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섭 과장>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찬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